

제 1 교시

국어 영역 (B형)

[1~3]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오늘의 논제는 'GMO(유전자 변형)* 식품은 유통되어야 한다.'입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1: 사막화와 기후 변화로 전 세계의 농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세계는 식량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GMO 작물은 해충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GMO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인류는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GMO 식품의 유통에 찬성합니다. [A]

①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 입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반대 1: GMO 기술은 원하는 특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다른 종의 유전자에 집어넣는 것이므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다국적 기업에서 개발한 '살충제에 강한 콩'을 먹인 쥐가 일반적인 쥐에 비해 사망률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GMO 식품은 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GMO 식품의 유통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양쪽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반대 2: 찬성 측은 GMO 식품을 식량 위기의 해결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싼값에 대량으로 생산되는 GMO 작물은 전 세계 빈민층만의 주요 식량이 될 것입니다.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한 식량을 선택하겠지요. 결국 부의 정도에 따라 GMO와 반GMO로 나뉘게 되는 새로운 불평등만 야기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힘없는 제3세계들은 선진국을 위한 GMO 작물 재배국이 될 것이며 저(低) 발전의 경제적 예측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들의 배고픔은 계속되지만 할 것입니다.

찬성 2: 반대 측에서는 GMO 작물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어떠한 자료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GMO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략>

*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식물 조직의 일부분에 인위적인 유전자를 삽입하여 좋은 형질을 갖춘 개체를 만드는 방법.

1. 위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립적 입장에서 진술된 논제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있다.
- ② 사회자의 배경 설명과 논제 제시로 토론이 시작되고 있다.
- ③ 상대측의 주장과 논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 ④ 찬반 토론자들 간의 협력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 ⑤ 토론자들은 논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반대 2' 토론자가 사용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측의 주장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 ② 상대의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음을 들어 상대측 주장을 약화한다.
- ③ 논제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점을 명확하게 하여 상대측 주장의 부당함을 강조한다.
- ④ 상대측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강화한다.
- ⑤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가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을 들어 상대측 주장을 반박한다.

3. ①에 <보기>를 추가하여 [A]를 반대 신문식 토론 방식으로 바꾼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회자: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교차 심문해 주십시오.

반대 2: GMO 기술은 특수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니, 이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찬성 1: 네, 하지만 자연에서도 유전자의 변이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반대 2: 그렇다면 인위적 유전자 조합은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부작용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찬성 1: 아! 뭐 그럴 수도.....

- ① 윤호: 토론자들은 상대편의 주장을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하겠군.
- ② 효정: 왜냐하면 상대방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신속하게 재조직해야 하니까.
- ③ 윤호: 그렇다면 토론 전에 논제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겠네.
- ④ 효정: 그래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토론자들에게 미처 듣지 못한 발언을 재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구나.
- ⑤ 윤호: 그러면 이 토론의 참가자들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논리적 오류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부각할 수 있겠군.

[4~5] 다음은 '토요휴무일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기 위한 토의의 과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원희:** 다음 주 우리 모둠의 발표 주제는 '토요휴무일 활용 방안'이야. 토요휴무일에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해.
- 수연:** 맞는 말이야. 요즘 창의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토요휴무일을 활용하자고들 하잖아. 그런데 자료를 보면 TV 시청, 컴퓨터 게임 등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눈에 띄어. 그런 학생들이 무려 47%나 되거든. [A]
- 원희:** 그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니?
- 수연:** 좋은 질문이야. ○○일보에서 전국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야.
- 원희:** 출처가 분명하니 그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좋겠다.
- 수연:** 좋아. 발표문은 네 말대로 토요휴무일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를 보여준 다음 토요휴무일을 잘 활용한 사례를 들어주면 되겠다.
- 원희:** 사례로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산악회와 축구 동아리를 소개하는 것이 어떨까? 이 동아리들은 건강에도 좋고 친구도 사귄 수 있고 리더십도 생겨.
- 수연:** 그런데, 너무 운동에만 치우친 것 같아. 다양한 사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 원희:** 그런가? 하긴 운동을 다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까. (잠시 생각하고) 그래, 네 말대로 더 찾아보자. 청소년 단체 또는 복지 단체 등의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면 더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 수연:** 그런 후에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해 보자.
- 원희:**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문을 쓰다 보면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거야.

4. [A]에서 '원희'가 사용한 주된 의사소통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 파악하기
- ② 정보나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인지 판단하기
- ③ 공손성의 원리와 같은 언어규범을 지키며 발언하기
- ④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 요약하기
- ⑤ 가치에 대한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평가하기

5. <보기>를 바탕으로 위 토의에 대하여 반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협력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거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 ① '좋은 질문이야', '그래' 등 서로 교감하며 반응하는 것은 화법의 대인관계적 성격에 해당하는군.
- ② 원희와 수연이가 만나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대화하는 것은 화법의 구두언어적 성격에 해당하는군.
- ③ '토요휴무일 활용 방안'이라는 청소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주제는 화법의 사회·문화적 성격에 해당하는군.
- ④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은 화법의 매체 언어적 성격에 해당하는군.
- ⑤ 원희가 수연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화법의 상호교섭적 성격에 해당하는군.

6. 다음은 원문을 공익 광고문으로 바꿔 쓴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문

요즘 악플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남긴 글일지 몰라도 당사자는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함부로 드러낸 비판과 냉소의 글은 삶의 의지를 꺾고, 인신공격의 글은 자존감을 해칩니다.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악플은 인터넷 공간 속 아름다운 소통 문화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공익 광고문

악플은 감정의 배설구?

—'배설'하는 언어에서 '배려'하는 언어로

악! 소리 나는 악플로 인터넷은 악천후
냉소는 삶을 꺾고 위로는 삶을 살려
원고지에 글을 쓰듯 한 번 더 생각할 때
인터넷 속 꽃피는 아름다운 소통 문화

- ① 주의를 끌 수 있는 간결한 표현을 사용했군.
- ② 문제 상황을 강조할 수 있도록 표제를 넣었군.
- ③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군.
- ④ 부제는 표제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여 주제를 드러내는군.
- ⑤ 구체적인 대상에게 말하듯 표현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군.

7. <보기 1>을 보고 '전력 수급 위기 극복'을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보기 2>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를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전력 수급 비상, 블랙아웃 가능성 급증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 증가율이 OECD 회원국 평균치의 6배에 달할 만큼 홍청망청 전력을 쓰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국가 전력망이 마비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 즉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 △△신문 —

— <보기 2> —

I. 블랙아웃 사태㉠

II. 전력 수급 위기의 원인

1. 공급 측면

가. 전력의 비효율적 관리

나. 발전소 설계 기술의 해외 이전㉡

다. 수요 대비 전력 공급 능력의 부족

2. 수요 측면

가. 전력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나. 블랙아웃의 위험성 인식 부족

III. 전력 수급 위기의 극복 방안

1. 공급 측면㉣

가. 전력 과소비 문화 확대

2. 수요 측면

가. 에너지 사용량 강제 감축 할당량 부과

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IV.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 촉구

- ① ㉠은 <보기 1>을 근거로 '블랙아웃의 가능성 급증'으로 구체화한다.
- ② ㉡은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③ ㉢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III-1-가'와 위치를 바꾼다.
- ④ ㉣에는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발전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하위 항목에 추가한다.
- ⑤ ㉤은 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의 장점 홍보'로 내용을 수정한다.

8. <보기>는 '국내 헌혈의 문제'를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최근 3년간 월별 평균 헌혈 실적 (단위: 건)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적	190,000	180,000	220,000	220,000	250,000	200,000	220,000	220,000	210,000	200,000	240,000	220,000

(나) 직업별 헌혈 실적

직업	비율
학생	57.4%
회사원	16.7%
군인	12%
기타	11.6%
공무원	2.3%

(다) 인터뷰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일일 예비 혈액보유량은 5일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비 혈액보유량은 평균 3.5일분 정도이고, 우리나라에 많은 A형과 O형은 평균 2~3일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헌혈에 참여해 달라는 말에 '다음에 하겠다'는 말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아쉽습니다.

— △△지역 헌혈의 집 ○○○씨

(라) 연구 보고서

외국의 경우, 6월 14일로 지정된 '세계 헌혈의 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별로도 '헌혈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등록헌혈회원을 모집하고 특별 관리함으로써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꾀하고 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헌혈량이 불안정한 현황을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헌혈이 특정 직업군에 의존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일반인이 헌혈을 기피하는 원인을 부각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1~2월 사이에 특정 혈액형에 대한 헌혈이 특히 필요함을 역설한다.
- ⑤ (나)와 (라)를 활용하여 학생 외 직업군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등록헌혈제 실시를 해결 방안으로 제안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의 글쓰기 계획

○○구청에 갔다가 느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을 써 봐야지. 이러한 글을 쓸 때는 문제 상황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글의 목적에 맞게 독자를 잘 선정하고, 이를 고려하여 글을 써야겠어. 또 내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다양한 장점이 있음을 부각해야지.

학생의 글

○○구청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할머니를 모시고 ○○구청에 방문했다가 불편함을 느낀 것이 있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⑦ 높은 건물인데 승강기가 한 대도 없어 저희 할머니 같은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이 필요한 업무를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승강기를 ㉠ 새로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는 인근 지역과 ㉡ 틀리게 노인 인구가 많아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에 승강기가 있으면 노인분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구청의 여러 시설을 이용하기 쉬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 높아집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셔서 정책에 ㉣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학생의 글쓰기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의 글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청장님께'를 보니 글의 목적에 맞게 독자를 잘 선정했어.
- ② '높은 건물인데 승강기가 한 대도 없어'를 보니 문제 상황을 잘 드러냈어.
- ③ '승강기를 새로 신설해 주시기'를 보니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어.
- ④ '구청을 방문하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것으로 보아 해결 방안의 부가적인 효과를 잘 드러냈어.
- ⑤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보니 대상을 고려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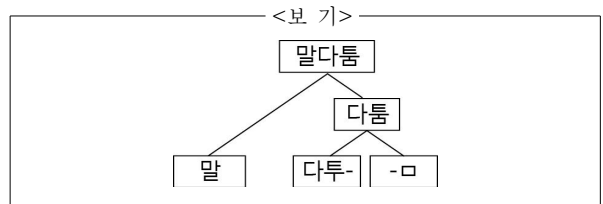
- ① ㉠: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저는'을 추가한다.
- ② ㉡: 뒤의 단어와 의미상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 ③ ㉢: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다르게'로 교체한다.
- ④ ㉣: 문장의 흐름을 고려하여 '높아질 것입니다.'로 수정한다.
- ⑤ ㉤: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반영하여'로 고친다.

11. 다음은 표준발음법 수업의 일부이다. ㉠의 사례와 같은 것은?

선생님: '내복약'은 [내:복약]으로 발음됩니다.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는 '㉠' 첨가 현상과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 첨가 현상은 단어와 단어가 결합할 때, 뒤 단어의 첫소리가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너, 노, 뉴]로 발음하는 현상입니다. 비음화 현상은 '㉡, ㉢(ㄴ, ㄷ, ㄹ)'이 '㉣, ㉤'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 내복약은 [내:복약 → 내:복약 → 내:복약]으로 발음하게 되는 겁니다.

- ① 꽃-망울[꼇망울]
- ② 눈-요기[눈요기]
- ③ 영업-용[영업용]
- ④ 텃-마루[텃마루]
- ⑤ 휘발-유[휘발류]

12. 단어의 계층 구조가 <보기>와 같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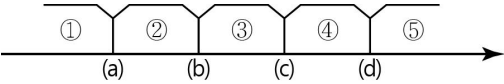
- ① 글짓기
- ② 나들이
- ③ 달리기
- ④ 들기름
- ⑤ 웃음보

13.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가 시작된 시각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보 기>

엄마: 아까 낮에 형과 전화하던데, 무슨 이야기 했니?
아들: 형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 도착해 보니까 영화가 곧 시작하겠다고 제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 늦지 않게 영화를 봤겠지?
아들: 네, 그럴 거예요.

(a) 형이 영화관에 도착한 시점
(b) 형이 영화 시작 시간표를 확인한 시점
(c) 형이 동생에게 말한 시점
(d) 아들이 엄마에게 말한 시점



14.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담화를 이루는 어휘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지만,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을 담화 표지라고 한다. 담화 표지에는 언어적 담화 표지와 몸짓, 표정, 손짓, 억양 및 어조 등 언어 외적 담화 표지가 있다. 담화 표지의 역할로는 내용의 예고, 강조, 요약, 예시, 열거, 부연 등이 있다.

여가란 직장 생활이나 공부하는 일 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여가 생활은 필요성이나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해서 여가는 자유입니다.

① 강조 ② 부연 ③ 열거
④ 예고 ⑤ 예시

15. <보기>의 ‘한글 맞춤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깔쭉이, 훌쭉이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깎두기, 빼꾸기, 동그라미

[23항 해설] 접미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란, 곧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을 말한다.

① ‘얼룩이’가 아니라 ‘얼룩기’로 표기하는 이유는 ‘깎두기’와 같은 규정 때문이겠군.
② ‘오뎅이’로 표기하는 이유는 ‘깔쭉이’를 표기할 때 적용한 것과 같은 규정 때문이겠군.
③ ‘부스럭기’가 ‘부스럭이’로 표기되지 않는 것은 ‘부스럭거리다’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겠군.
④ ‘딱따구리’가 아니라 ‘딱따구리’로 표기하는 것은 접미사 ‘-우리’가 사용되었기 때문이겠군.
⑤ ‘빼쭉이’가 아니라 ‘빼꾸기’로 표기하는 이유는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이 접미사와 결합했기 때문이겠군.

16. [A]에 제시될 자료로 적절한 것은?

대화	화면
선생님: 자, 화면을 봅시다. 화면에 있는 『훈민정음』의 ‘ㄱ’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학 생: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ㄱ’에는 모음이 없어요. 선생님: 그럼 ‘ㄱ’에 어떤 모음을 붙여서 읽었을 것 같은데……. 학 생: 이 당시에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ㄱᄃ]으로 읽었겠지요.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 중세국어 자료인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는 ‘ㄱ’을 ‘其役(기역)’으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ㄱ’을 [기]로 읽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선생님: [A]를 보세요. 화면의 이 자료는 ‘ㄱ’이 / /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학 생: 아하, 그러면 [기ᄃ]이겠군요.	[A]

- ① ㄱᄃ(같은) ② 나ᄃ(나는) ③ 머리ᄃ(머리는)
④ 바되ᄃ(떠받치는) ⑤梨花ᄃ(이화는)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의 목칠공예 가운데 가장 이채롭게 발달한 나전칠기(螺鈿漆器)는 메소포타미아의 목화 기법에 기원을 두고 있다. 목화 기법은 나무 바탕에 다른 재질이나 색깔의 나무를 박아 넣어서 상감하는 표면 장식 기법으로 서양 미술의 모자이크와 유사한 면이 있다. 이 기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대신 자개*를 가지고 장식하는 ㉠ 나전 기법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영롱한 나전칠기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나전칠기 제작의 첫 단계는 목공예품 위에 옷칠을 여러 번 되풀이한 다음에 광채가 나는 자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옷칠한 목공예품에 박아 넣거나 붙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표면에 다시 옷칠을 하고 나서 자개 장식 위에 덮인 옷칠을 긁어낸다.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한 다음 광을 내어 완성한다.

이처럼 나전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단한 자개를 오려 내기 위한 정밀한 세공 작업과 여러 번의 옷칠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여러 번 옷칠을 반복하는 것은 짙은 바탕색을 만들어서 영롱하고 화사한 빛을 발하는 자개 무늬를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그 보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나전 기법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당대(唐代)에 성행하여 한국과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대에는 주로 백색의 야광패로 두껍게 만든 자개만을 사용하였다.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전래 초기에는 백색의 야광패를 사용하였으나, 후대에는 청록빛을 띤 오묘한 색상의 전복껍데기를 얇게 만들어 붙이는 방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꿇음질 기법, 할패법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이 개발되어 나전 기법이 화려한 꽃을 피웠고 도리어 중국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성행하였다.

오늘날 중국과 일본의 나전은 쇠퇴하여 그 명맥이 끊겼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자개를 상감하는 나전칠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섬세한 무늬와 신비스러운 빛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고유의 공예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 자개: 조개류의 껍데기를 갈아 반짝이는 층을 드러나게 한 후 잘게 썰어낸 것

17. ‘나전칠기’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전칠기의 기법은 당나라의 목화 기법에서 유래하였다.
- ② 자개 표면에 상감을 잘하는 것이 나전칠기 제작의 관건이다.
- ③ 한국의 초기 나전칠기는 전복껍데기로 만든 자개를 사용했다.
- ④ 나전칠기의 옷칠은 자개 무늬의 빛을 잘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 ⑤ 처음 전래되었을 때부터 한국 나전칠기의 자개 색깔은 중국과 달랐다.

18. 윗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모자이크(Mosaic)는 기본적인 밑그림에 접착제를 바른 후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붙여 그림이나 모양을 만들어 내는 서양의 장식미술 기법으로, 여러 가지 색의 돌이나 유리, 금속, 조개껍데기, 타일 등을 조각조각 접합시켜서 무늬나 회화를 형성한다. 이것은 바탕에 흠을 파서 조각들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표면 위에 붙인다는 점에서 상감(象嵌)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모자이크는 회화와 가장 가까운 예술 형태로, 규모가 큰 표면 장식에 적합하기 때문에 주로 건축 벽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 ① ㉠은 ㉡과 달리 흠을 파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주로 벽면 장식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 ③ ㉡은 ㉠에 비해 표면 장식 재료가 다양하다.
- ④ ㉠과 ㉡은 모두 재료를 붙이는 기법을 사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흔히 ‘불안’을 부정적인 감정, 극복해야 할 감정으로 여긴다. 그런데 여기 불안을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 한 학자가 있다. 그는 바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가 바라본 불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의 철학 전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돌멩이나 개, 소는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존재’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그런 인간을 하이데거는 ‘현존재(現存在)’라고 이름 붙였다. 현존재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이데거는 인간을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독특한 존재로 간주한다.

현존재는 세계 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존재와 세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와 세계와의 관계를 ‘도구 연관’으로 설명했다. 도구 연관이란 세계의 모든 것들은 서로 수단-목적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관계가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계 속 사물은 다른 사물의 수단이 되고 동시에 또 다른 사물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하이데거가 설명하는 도구 연관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현존재의 생존을 위한 것이며 도구 연관 네트워크의 최종 목적의 자리에는 현존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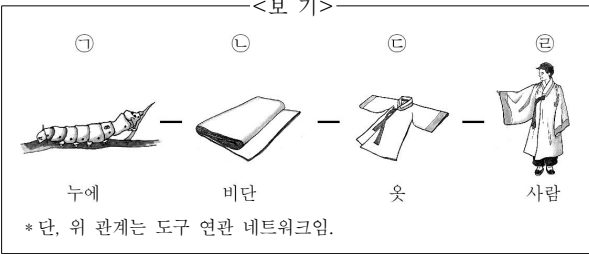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은 현존재인 자신을 위해 사물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 사물에 얽매일 수 있다. 현존재가 목적으로서의 위상을 지니지 못하고 도구에 종속되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현존재는 세계 속의 도구와 수단 속에서 잊히는 것이다. 이것은 현존재의 퇴락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불안에서 찾는다. 불안은 우리가 특수한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느끼는 공포와는 다르다. 불안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게만 고유하게 있는 것으로 어떤 구체적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가지는 유한성에서 오는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오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본래적이고 고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불안이 있기에 인간은 현존재의 퇴락에서 벗어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현존재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외면하는 사람은 비본래적인 세상에 몰두함으로써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일상인의 위치로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의 유한성에서 유래하는 불안을 느끼는 현존재는 자신의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다. 불안을 느끼는 현존재만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최종 목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불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 윗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며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삶
 - ② 과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살아가는 삶
 - ③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삶
 - ④ 인간 삶의 한계와 자신의 본질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 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 ㉡은 수단-목적의 관계이다.
- ② ㉠과 ㉡은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는다.
- ③ ㉡과 ㉢은 모두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다.
- ④ ㉢과 ㉣은 현존재로서 세계 안에서 존재한다.
- ⑤ ㉠, ㉡, ㉢은 궁극적으로 ㉣을 위해 존재한다.

21. 윗글과 <보기>의 ‘불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인간은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 결정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을 느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자유에 걸맞은 신중함을 내면화하게 된다.

- ① 윗글과 <보기>는 ‘불안’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불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불안’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보기>는 윗글과 달리 ‘불안’을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K-POP’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빠르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이른바 ‘K-POP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런데 우월한 문화가 열등한 문화를 잠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화를 전파한다는 기존의 문화 확산론으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이론이 체험코드 이론이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문화 사회에서 개인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일종의 코드*가 형성되는데 이를 ‘체험코드’라고 말한다. 따라서 체험코드 이론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기술의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대의 문화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담겨 문화 콘텐츠화되고, 세계화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 소비된다.

또한 체험코드 이론은 문화 수용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문화를 체험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제는 ‘우리 가문은 뼈대가 있고, 전통과 체면이 있으니 너 또한 그에 맞게 행동하여라.’라는 부모의 혈연 코드적이고 신분 코드적인 말은 잘 통하지 않는다. 과거의 이념인 민족·계급·신분 의식 등이 문화 소비와 수용 행위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과 달리 오늘날은 문화 소비자의 개별적인 동거나 취향, 가치관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달과 개인주의의 확대는 기존의 코드를 뛰어 넘어 공통 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들만의 체험코드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K-POP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K-POP이라는 문화 콘텐츠가 ‘유투브’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체험되어 하나의 코드를 형성했고 쌍방의 소통으로 더욱 확대되었기에 그러한 인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시대의 문화 중심부와 주변부의 대립적 패러다임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탈영토적인 문화 교류의 장(場)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체험코드 이론은 앞으로 문화 교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커뮤니케이션 미디어(communication media): 의사소통 매체 또는 통신 매체로 각종 정보 단말기와 TV, 인터넷 매체 등을 말한다.

* 코드(code): 어떤 사회나 직업 따위에서 공유되어 굳어진 공통의 약속. 이 글에서는 공통의 인식 체계나 가치관이란 의미로 쓰임.

22. 밑줄에 사용된 논지 전개 방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특정 현상을 사례로 제시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
 ㄴ. 기존 이론의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ㄷ. 두 이론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ㄹ. 개념을 정의한 후 대상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23.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수가 공유하는 문화 체험코드가 소수의 체험코드를 흡수해 통합한다.
 ② 기존의 문화 이론은 문화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③ 체험코드 이론은 과거 사회에서 중시되던 집단의식이 약화되면서 등장했다.
 ④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발달로 시·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문화를 소비하게 되었다.
 ⑤ 일방적인 전달에서 쌍방의 소통으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24.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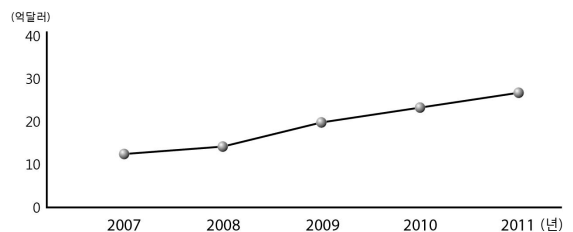
— <보 기> —

(가) 신문기사

A는 세계 최대 K-POP 영문 뉴스사이트를 통해 화상 채팅으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난다. A와 팬들의 화상 채팅은 사전 질문과 현장에서 댓글로 올라오는 질문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A는 “팬들이 가장 많이 접속할 수 있는 현지의 밤 시간대를 택했다.”고 밝혔다.

— ○○신문 —

(나) K-POP 관련 콘텐츠 산업 수출액 현황



(다) 인터뷰

“후지 TV가 종종 한국 방송국인가 싶을 때가 있다. 일본인은 일본 전통 프로그램을 보고 싶다. 한국 관련 방송이 나올 때면 TV를 꺼버리고 싶다.”

— 일본 배우 ○○○ —

- ① (가)로 보아 A는 오늘날 문화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군.
 ② 전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개인적 성향이 강해져서 (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겠군.
 ③ (다)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발언이므로 우수한 한국 문화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으로 극복해야겠군.
 ④ (가)와 (나)를 볼 때, 문화 소비자를 고려한 노력이 K-POP 신드롬으로 나타난 것이겠군.
 ⑤ (가)와 (다)를 보니 문화 콘텐츠가 국경과 문화권을 뛰어넘어 소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기가 있는 지역이나 폭포가 있는 계곡에 서식하는 옹화반 식물(학명: Splash-cup plant)은 지름 3~5mm의 원뿔형 꽃 속에 작고 가벼운 씨앗이 있다. 이 식물은 평균 높이가 10cm 정도로 작지만 놀랍게도 그 10배의 거리까지 씨앗을 퍼뜨린다.

이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꽃의 모양과 유사한, 아래로 향하는 원뿔 모형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씨앗을 원뿔의 꼭짓점에 놓고 빗방울과 크기 및 속도가 같은 지름 2mm 정도의 물방울을 떨어뜨려 비가 오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모형의 각도(θ)를 30°에서 65°로 5°씩 변화시키며 8개의 모형으로 실험한 결과, 각도가 40°일 때 씨앗이 가장 멀리 날아갔다. 이는 에너지의 역학적 관계 때문이다. 원뿔형 구조이기 때문에 물방울은 모형의 경사면에 각도를 가지며 떨어진다. 경사면에 물방울이 닿는 순간에 물방울은 내부의 표면에 퍼지면서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물방울이 가지는 중력의 힘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내부에서 미끄러진다. 원뿔의 구조에 의해 물방울은 중앙을 향해 미끄러지게 되는데, 그러면 중앙에 있던 작고 가벼운 씨앗이 물과 함께 모형 밖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각도가 40°일 경우,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며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이 가장 적어서 미끄러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물방울이 중앙에 떨어졌을 때보다 경사면에 떨어졌을 때 씨앗이 더 멀리 날아갔다. 물방울이 원뿔의 정중앙에 떨어졌을 때에는 에너지가 사방으로 거의 동일하게 분산되면서 원형이 되지만, 경사면에 떨어졌을 때에는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이 되어서 비대칭 타원이 되기 때문이다. 경사면의 물방울은 비대칭적으로 퍼지면서 떨어진 위치의 반대 방향으로 더욱 멀리 튀어 나간다.

옹화반 식물들의 꽃잎 경사면은 40°~60° 사이이다. 이는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가장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경사면의 각도로서, 빗방울의 힘을 ⑦빌려 씨앗을 최대한 멀리 퍼뜨릴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옹화반 식물이 서식 지역의 기후 특성에 적응하면서 번식에 유리한 최적의 형태로 진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식물들은 각자의 환경에 맞게 씨앗을 퍼뜨리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번식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식물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이유이다.

25. 윗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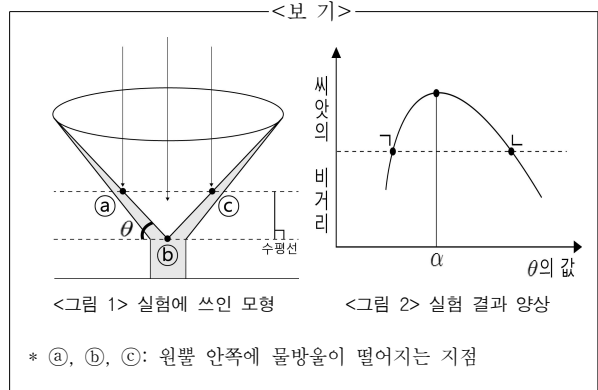
- ① 상식에 근거하여 특정 현상을 설명하려고
- ② 특정한 이론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 ③ 특정 현상을 다른 학자의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 ④ 두 이론의 장점을 취하여 새로운 이론을 세우려고
- ⑤ 구체적 현상에 나타난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26. 윗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지역의 기후와 그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구조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연구하고자 했군.
- ② 물방울이 씨앗이 날아가는 데 역학적인 작용을 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군.
- ③ 실험을 위하여 다양한 옹화반 식물들을 조사해 가장 일반적인 구조로 모형을 만들어야 했겠군.
- ④ 실험의 원리를 알기 위해 물방울이 떨어지는 각도와 위치라는 두 개의 변인을 사용하였군.
- ⑤ 물방울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 꽃의 내부에서 변화하는 물방울의 모양을 관찰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군.

27.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그림 1>의 ㉡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과 ㉢에 작용하는 에너지는 같겠군.
- ② <그림 1>의 ㉠에 물방울이 닿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겠군.
- ③ <그림 1>의 ㉠에 물방울이 떨어질 때와 ㉢에 떨어질 때 씨앗이 날아가는 방향은 반대이겠군.
- ④ <그림 2>의 α 는 씨앗의 비거리가 최대치인 지점이므로 40°에 해당하겠군.
- ⑤ <그림 1>의 ㉠에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측정값이 <그림 2>의 1이라면 ㉢에 떨어졌을 때 측정값은 2에 해당하겠군.

28. ㉠을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용(利用)하여
- ② 응용(應用)하여
- ③ 도용(盜用)하여
- ④ 대용(代用)하여
- ⑤ 남용(濫用)하여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의 뜻을 풀기를 구하면서 다만 책에 있는 글자의 뜻과 구두(句讀)*만을 통하여 문득 제 의견을 내는 것은 바로 초학(初學)*이 하는 일이다. 종전의 호학(好學)이란 이름은 대부분 온갖 고생을 견뎌 내며 부지런히 노력함에 중점을 두어 말하였고, 이치나 도리를 깨우쳐 알거나, 증거나 경험을 따져서 말한 것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옛날식의 호학으로 후학을 권유한다면, 우매한 자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겠지만, 식견이 있는 사람이 본받을 정도는 되지 못한다.

선인들의 글에도 직접 본 것과 못 본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있다. 또한 본 것과 아는 것에 대해 쓴 글도 후인들에게 이해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모르거나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류(事類)*를 널리 인용하고 옛 사람이 남긴 말을 많이 인용하여 글로써 앎을 삼고 언어로 본 것을 삼고 있다. 후세의 초학들이 공부할 시작할 때 대부분 이러한 글에 따르게 되므로 선인이 직접 보지 않았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억지로 볼 수 있는 단서를 구하며, 선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허욕과 망상이 여기에서부터 생기게 되고 건강부회(牽強附會)를 능사로 생각하게 된다. 사실을 따져보면 선인들의 모르는 것과 보지 못한 것이 후인의 앎을 가리고 보는 것을 가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첫째는 글을 저술하는 데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이니,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 하거나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기록해 놓는 것은 후인들을 해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글을 연구하는 자가 경계하여야 할 바이니, 만약 실천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지난날의 전철(前轍)을 반복하게 될 것이니, 어찌 절대로 없는 것에 의혹되기도 소독이 있기를 바랄 수가 있겠는가.

- 최한기, 『인정(仁政)』 -

* 구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문장부호.

* 초학: 학문을 처음으로 닦음.

* 사류: 옛 것을 인용하여 현재의 문장에 사용하는 것.

29.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람직한 독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리 세워 둔 독서의 계획에 따라 꾸준히 독서해야 한다.
- ② 자신의 읽기 능력을 고려하여 독서의 양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 ③ 글에 담긴 지식을 실생활에서 행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 ④ 글을 다 읽은 후에도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 ⑤ 글의 내용이 어려울 때는 훑어 읽으면서 전체적 흐름 파악에 주목해야 한다.

30. 윗글의 필자가 <보기>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독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수업 시간에 수강생 20여 명에게 5분을 주고 미국의 총인구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학생들은 일제히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5분 후 각자 찾은 정보를 발표시켰더니 현재 미국의 총인구수가 8가지 결과로 나타났다.

- ① 독서의 실용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학문 연구만을 위해 책을 읽으려는 태도
- ② 자신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읽는 책을 무조건 따라 읽으려는 태도
- ③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정보의 신뢰성과 가치성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
- ④ 책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깊이 있게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많은 책을 읽으려고 하는 태도
- ⑤ 학문 탐구라는 독서의 근본적인 목적을 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책을 읽으려고 하는 태도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자기 다급한 천둥소리에 수정궁이 몹시 흔들리고 시녀가 급히 고하되,

“큰 화가 생겼나이다. 남해 태자가 무수한 군병을 거느려 맞은편 산에 진을 치고 양 원수와 자웅을 겨루고자 하나이다.”

용녀가 상서를 깨워 말하되,

“내 처음에 낭군을 머물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일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상서가 크게 노하여 왈,

“남해 태자는 어찌 이렇듯 무례하리오?”

소매를 떨치고 말에 올라 물 밖으로 솟아오르니 남해 군병이 백룡담을 에워싸거늘 상서가 삼군을 지휘하여 태자와 맞섰다.

남해 태자가 말을 타고 박차 나가면서 꾸짖어 말하되,

“양소유는 사람의 인연을 가로막아 남의 혼사를 망치고 남의 처자를 겁탈하였으니 맹세코 너와 더불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

상서가 또한 말을 달려 크게 웃고 말하되,

“동정 용왕의 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소유를 따르기로 하늘에서 정한 바 있으니 나는 다만 천명에 순종할 따름이라.”

태자 크게 노하여 모든 병사를 몰아 상서를 잡으려 했다. 제독과 별참군이 뛰어서 달려드니 상서가 백육편을 한 번 들자 당나라 진중에서 일만 개의 화살이 동시에 발사되어 깨어진 비늘과 쇠잔한 껍데기가 땅에 가득하여 마치 눈이 날리는 듯 하더라. 태자가 두어 군데 상처를 입어 변신을 하지 못하여 결국 잡히니 상서가 정을 울려 군사를 거두고 태자를 결박하여 진중에 돌아오니라. 문지기가 아뢰되,

“백룡담 낭자가 친히 군대 앞에 나와 원수께 하례하고 장사들을 대접하고자 하나이다.”

상서가 매우 기뻐하며 청하여 들어오게 하니 용녀가 싸움에서 이긴 것을 하례하고 일천 섬의 술과 일만 마리의 소로 군사를 대접하니 군사들이 배불리 먹고 즐겨 노래 부르는 소리가 진동하더라.

양 원수가 용녀와 같이 앉고 남해 태자를 잡아 들어오니,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자 꾸짖어 말하되,

[A] “내가 천명을 받자와 오랑캐를 평정하니 온갖 신명이 명령을 거역하지 않거늘 어린아이 망령되게 천명을 알지 못하고 항거하니 이는 스스로 죽고자 함이라. 나의 허리에 찬 보검은 옛날 위징(魏徵) 승상이 경하(涇河)의 용을 벤 것이라. 너의 머리를 베어 삼군을 호령할 것이로되, 너의 아버지가 남해를 진정시키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 있는 까닭에 용서하니 돌아가 이후로는 천명에 순종하고 망령된 마음을 먹지 마라.”

군중에 있는 약을 내어 태자의 상처에 바르게 하고 놓아 보내니 태자가 머리를 싸고 쥐가 숨듯이 돌아가니라.

[중략 줄거리] 동정 용왕은 양소유가 남해 태자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한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양소유를 청하여 동정 용궁에서 잔치를 열어 크게 대접한다.

용왕이 상서를 궁전 문밖에서 송별하더니 상서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 산이 높고 빼어나 다섯 봉우리가 구름 속에 들었거늘 왕에게 묻되,

“이 산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이까? 소유가 천하를 두루 다녔지만 오직 화산과 이 산을 못 보았나이다.”

용왕이 대답하되,

“원수가 이 산을 모르시도소이다. 이 곧 남악 형산이다.”

상서가 왈,

“어떻게 하면 저 산을 볼 수 있으리까?”

왕이 왈,

“날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잠깐 구경하셔도 군영에 돌아 갈 수 있으리이다.”

상서가 수레에 오르니 이미 산 아래에 이르렀더라. 막대를 끌고 돌길을 찾아가니 일천 바위 다투어 빼어나고 일만 물이 거루어 흐르니 두루 구경할 겨를이 없더라. 한탄하여 말하되, “언제 공을 이루고 물러나 세상 밖 한가한 사람이 될꼬?”

문득 바람결에 종소리 들리거늘 절이 멀지 않은 줄 알고 따라 올라가니 어느 절이 있는데 건물이 극히 장려하였다. 노승이 당상에 앉아 바야흐로 설법하니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고 골격이 청수하여 세상 사람이 아닐러라. 모든 중을 거느리고 당에서 내려 상서를 맞으며 말하되,

“산에 사는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 대원수 오시는 줄 알지 못하고 멀리 나가 맞지 못하니 이 죄를 용서하소서. 원수가 아직은 돌아올 때 아니거니와 이미 왔으면 전(殿)에 올라 예불하소서.”

상서가 향을 피워 부처 앞에 절하고 전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실족(失足)하여 엎어졌고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몸은 영중에서 의자에 의지하였고 날이 이미 밝았더라. 상서가 장수들을 모아 묻되,

“너희들은 밤에 무슨 꿈을 꾸었느냐?”

모두 대답하되,

“꿈에 원수를 모시고 귀신 병사들과 싸워 이기고 장수를 잡았으니 이 분명 오랑캐를 멸할 징조로소이다.”

상서가 매우 기뻐하며 꿈을 이야기하고 장수를 거느려 백룡담 위에 가보니 고기비늘이 떨어져 가득하고 피가 흘러 냇물이 되었더라. 잔을 가져오라 하여 먼저 못의 물을 떠 마시고 병든 군병을 먹이니 즉시 좋아지거늘 그제야 군병과 말을 일시에 먹이니 즐거워하는 소리 우레 같더라. 양소유와 대적하여 싸우던 오랑캐 병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항복하고자 하더라.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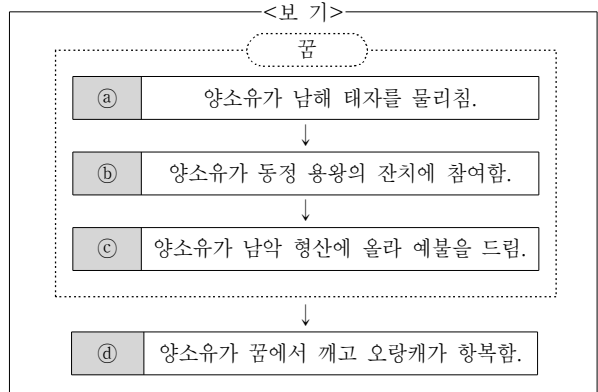
3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남해 태자는 원수의 관용을 거절하고 끝까지 저항하였다.
- ② 상서는 백룡담 물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먼저 마셔 보았다.
- ③ 노승은 상서가 형산에 찾아올 것을 알고 대비하고 있었다.
- ④ 장수들도 상서와 함께 예불에 참여하여 승리를 기원하였다.
- ⑤ 용녀는 상서가 남해 태자를 물리칠 경우 보상을 약속하였다.

32. [A]의 발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안도감을 주려고
- ② 저항 의지를 꺾으려고
- ③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 ④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 ⑤ 오랑캐 토벌의 정당성을 알려주려고

33. <보기>는 윗글의 서사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①과 ④의 공간적 배경은 동일하다.
- ② ①의 실제 여부는 ④에서 확인된다.
- ③ ①~④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 ④ ③에서 지향하는 삶을 위한 과정이 ④에 나타난다.
- ⑤ ①~③은 ④와 달리 신비로운 체험이 나타난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31운동이 일어나기 전해 겨울, 동경 W대학 문과에 다니는 '나'는 해산 후더침을 앓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는다. 학기말 시험 도중이었지만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귀국하려 한다.

“그럼 면도나 할까!”

나는 이같이 대답을 하고 나서 깎지 않아도 좋을 머리까지 깎으려는 지금의 자기가 별안간 야비하게 생각되는 것을 깨닫고, 앞에 붙은 চে경 속을 멀거니 들여다보다가 혼자 껍 ㉠ 웃어버렸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자빠져서도 이처럼 여유 있고 늘어진 자기의 심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싫든 좋은 하여간 근 육칠 년간이나, 소위 부부란 이름을 띠고 지내왔는데..... 당장 숨을 묻다는 지급전보를 받고 나서도, 아무 생각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무사태평인 것은 마음이 악독해 그러하단말인가. 속담의 상말로, 기가 하두 막혀서 막힌듯만동해서 그런가?..... 아니, 그러면 누구에게 반해서나 그런다 할까? 그럼 누구에게?.....’

그러나 ‘그러면 누구에게?.....’라고 물을 제, 나는 감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만 백색 저 뒤에서는 정자(靜子)! 정자! 하는 것 같았으나 죽을힘을 다 들어서 ‘정자’라고 대답하여 본 뒤에는, 또다시 질색을 하며 머리를 내둘렀다. 실상 말하면 정자가 아니라는 것도 정자라고 대답하려니만큼 본심에서 나온 대답이었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머리를 깎으려고 들어온 동기가 애초에 어디 있었느냐는 것은 분명히 의식도 하고 부인하지도 않았다.

‘과연 지금 나는 정자를 내 아내에게 대하는 것처럼 냉연히 내버려둘 수는 없으나,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만큼 또 다른 의미로 정자를 사랑할 수는 없다. 결국 나는 한 여자도 사랑하지 못할 위인이다.’

이같은 생각을 할 제 나는 급작스레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생활의 목표가 스러져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저러나 지금 이다지 시급히 떠나려는 것은 무슨 때문인가. 내가 가기로 죽을 사람이 살아날 리도 없고, 기위 죽었다 할 지경이면 내가 아니 간다고 감장*할 사람이야 없을까? 육칠 년이나 같이 살아온 정으로? 참 정말 정이 들었다 할까? 입에 붙은 말이다. 그러면 의리로나 인사치레로? 그렇지 않으면 일가에게 대한 체면에 그럴 수가 없다거나, 남편 된 책임상 피할 수 없어서 나가 봐야 한다는 말인가. 흥! 그런 생각은 염두에도 없거니와 그런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여기까지 와서는 더 생각을 이어 할 용기가 없었다. 만일에 어디까지든지 캐물을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의 명답을 얻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잇몸이 근질근질하는 것 같아서 다시 건드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을 살짝 덮어두었다.

┌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치장을 차린 뒤에 어디로 가리
[A] 라는 결심도 채 하지 못하고 이발소에서 뛰어나왔다.

└ ‘바로 하숙으로 돌아갈까? 정자에게로 가보나?’

[종략 줄거리] ‘나’는 일본 여자인 정자를 만나고 일본인 형사의 검문을 받으며 부산으로 가는 연락선을 탄다. 연락선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 조선 노동자의 매매 현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는다. 부산에 도착한 후 기차를 타고 김천을 거쳐 조선 민중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며 서울에

도착한다. 며칠 후 결국 아내가 죽고 ‘나’는 정자의 편지에 답장을 쓴다.

.....소학교 선생님이 ‘사뻐’(환도)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되다. 고민하고 오뇌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성(內省)하는 고민이요 오뇌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도 숨이 죽어 얼디어 있는 거세된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증이 나는 법입네다. 혹은 연민의 정이 있을지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救)하는 길은 못됩니다.

이제 구주(歐洲)의 천지는 그 참혹한 살육의 피비린내가 걷히고 휴전조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신생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학교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칼을 떼어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우리 문학의 도(徒)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우리의 교육,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의, 그리고 당신의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나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나는 형님이 떠날 제 초상에 쓰고 남은 것이라고, 동경 갈 노자와 함께 책값이며 용돈으로 내놓고 간 삼백 원 속에서 백원을 이 편지와 함께 부쳐주었다. 혹시는 다른 의미나 있는 줄로 오해할 것이 성이 가시기도 하나, 동경에서 떠날 제 선사받은 것도 있으려니와, 정자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한마디 쓰고, 다소 부조가 될까 하여 보낸 것이다. 실상은 동경 가는 길에 들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였고 때문에, 아주 이것으로 마감을 하여 버리고, 나도 이 기회에 가쁜한 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한 열흘 더 있다가 졸업 논문도 있고 아무래도 학교 일이 걱정이 되어서 떠나고 말았다. 정거장에는 큰집 형님, 병화 내외, 올라들이 나왔다. 올라는 입도 벌리지 않고 오도카니 썼고, 병화 내외도 플랫폼의 보폭에 매달린 시계만 치어다보며 선후품을 하고 섰었다. 그러나 병화의 얼굴에는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모든 오해를 풀고, 인제는 안심하였다는 듯이 화평한 기색이 도는 것 같았다.

차가 떠나려 할 제 큰집 형님은 승강대에 섰는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며,

“내년 봄에 나오면 어떻게 속현(續絃)*할 도리를 차려야 하지 않겠나?”

하고 난데없는 소리를 하기에, 나는,

“겨우 무덤 속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하고 거드럭거릴 때가 되거든요!.....”

하며 ㉡ 웃어버렸다.

— 염상섭, 「만세전(萬歲前)」 —

* 감장: 장례 치르는 일을 돌봄.

* 속현: 거문고와 비파의 끊어진 줄을 다시 잇는다는 뜻으로, 아내를 여윈 뒤에 다시 새 아내를 맞다.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차분한 어조로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⑤ 공간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3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갈등이 완화되면서, ㉡은 갈등이 고조되면서 발생한다.
 - ② ㉠에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에는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③ ㉠과 달리 ㉡은 다른 인물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 ④ ㉠과 달리 ㉠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다.
 - ⑤ ㉠과 ㉡은 모두 다음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일본 자기중심적 성향	→ 연락선 · 기차 외적 경험	→ 서울 민족의 현실 자각
-----------------------	----------------------------	--------------------------

선생님 : 이 표는 ‘반성적 시각’을 지닌 인물의 내면 변화를 중심으로 이 글의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 생 : 선생님, 인물이 갖고 있다고 하신 ‘반성적 시각’에 대해 더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 ‘반성적 시각’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 또는 세계를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소극적 인물이지만 ‘반성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로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 ① ‘이발소’에서의 ‘나’의 모습은 자신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② ‘목욕탕’과 ‘정거장’에서의 외적 경험은 인물에게 비로소 반성적 시각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 ③ ‘소학교 선생님의 사별’을 통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인물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④ ‘정자’의 편지에 대한 ‘답장’은 타인과 세계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드러낸다.
- ⑤ ‘정자’와의 이별은 소극적 인물의 자기중심적 성향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37. [A]의 인물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스로 노력은 하지 않고 수주대토(守株待兔)하고 있군.
 - ②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군.
 - ③ 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좌고우면(左顧右盼)하고 있군.
 - ④ 이리저리 좌충우돌(左衝右突)하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있군.
 - ⑤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승자박(自繩自縛)하게 되었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조당전은 고서적을 수집,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조 3년 신숙주의 하인이 쓴 『영월행 일기』라는 책을 김시향에게서 구입한다. 그런데 『영월행 일기』를 판 김시향이 책을 돌려 달라고 찾아오자 조당전은 돌려주는 조건으로 책의 재현을 제안한다. 그래서 조당전은 단종을 살피러 가는 신숙주의 하인 역, 김시향은 한명회의 여중 역을 맡게 된다.

제3장

(서재 가운데를 차지했던 원탁과 의자들은 구석으로 옮겨져 있다. 조당전은 넓어진 공간에서 당나귀 모형을 조립하는 중이다. 당나귀 몸뚱이에, 머리와 꼬리, 네 다리를 끼워 넣는다. 당나귀 다리에는 끌고 다니기에 편리한 바퀴를 부착한다.)

조당전 이 당나귀를 타세요.
김시향 제가.....타요?
조당전 네.
김시향 왜 당나귀를 타야 하죠?
조당전 부인께서 다녀가신 후 나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는.....결심했지요. 이 책을 부인의 남편께 되돌려 드리기로요.

김시향 고맙습니다, 선생님.
조당전 그러나 이 책의 형태만을 되돌려 드리렵니다.
김시향 형태만이라뇨?
조당전 내용은 우리가 갖는 것이죠.
김시향 무슨 말씀이신지.....?
(조당전, 문갑 위에 있는 녹음기의 작동 버튼을 누른다. ㉠ “꼬끼오~”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

조당전 어서 당나귀에 올라타요. 그럼 부인과 나는 『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김시향, 머뭇거릴 뿐 타지 않는다. 조당전은 김시향을 강제로 부축해서 당나귀에 올려 태운다.)
조당전 새벽닭이 울었잖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김시향 선생님도 타세요!
조당전 둘이 타면 무거워서 당나귀는 달리지 못해!
(조당전, 바퀴 달린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서 달리기 시작한다. 그의 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진다.)

조당전 8백 리 길이 모두 불거리야.
김시향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당전 마음의 눈으로 봐.
김시향 (침묵한다.)
조당전 옛날 어릴 적 기억나? 따뜻한 봄이 되면 아이들은 참 좋아했었지. 풀과 나무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예쁜 꽃들이 피었어. 추운 겨울 동안 집안에만 웅크리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보게 되는 그 환한 광경, 마치 봉사가 눈을 뜬 순간처럼 신기하고 놀라웠지. 아, 저기 나비 좀 봐!

김시향 ㉡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노랑나비예요? 흰나비예요?
조당전 왜 눈은 가리고 묻지?
김시향 옛날 어른들이 말씀했었죠. 그해 처음 노랑나비를 보면 운이 좋고, 흰나비를 보면 운이 나쁘대요.
조당전 그렇다면 가만히 눈을 떠봐.
김시향 (가렸던 손을 떼고 허공을 바라본다.) ㉢ 어머니, 노랑

나비네! 한 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기도 노랑나비! 저기도 노랑나비! 온통 노랑나비 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조당전 임자, 처음엔 내키지 않더니 이젠 흥이 났군.

김시향 선생님은요, 선생님도 흥이 나셨으면서!

조당전 날 선생이라고 부르면 안 돼.

김시향 그럼 어떻게 부르죠?

조당전 임자라 불러.

김시향 임자.....?

조당전 당신이라 부르든가.

김시향 (웃으며) 호호호, 당신.....

조당전 이 놈 당나귀도 신이 난 모양이야. 연신 코를 별름거리면서 꼬리를 흔들어 대는군.

(조당전, 끌고 가던 당나귀를 멈춰 세운다.)

조당전 두 갈래 길인데.....

김시향 영월은 어느 쪽이죠?

조당전 동쪽이야, 강원도는.

<중 략>

(조당전과 김시향 나란히 바깥 붙어서 걸어간다. 조당전이 다른 방으로 통하는 미닫이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조당전 여기, 숲속에 조그만 기와집이 있군.

김시향 기와집요.....?

조당전 아무도 안 계시느냐고 여쭙어라!

김시향 이상해요..... 인기척이 없어요.....

조당전 붓집 장수 왔노라고 여쭙어라!

김시향 아무 응답이 없군요.

조당전 우리 함께 저 대문을 열어 보자구.

(조당전과 김시향,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미닫이문을 양쪽으로 밀어 쫓는다. 그러자 그 뒤의 공간이 보인다. ㉠하얀 석고 덩어리처럼 무표정한 얼굴의 소년 형상이 의자 위에 앉아 있다.)

김시향 누군가 있어요.....

조당전 그래.....쫓겨난.....어린 임금이야.....

김시향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요.....

조당전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어..... 아무 표정도.....

(㉡조당전과 김시향은 뒷걸음으로 물러선다. 무대조명, 서서히 암전한다.)

- 이강백, 「영월행 일기」 -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회상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찾아가고 있다.
- ②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 ③ 갈등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파국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무대 밖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윗글의 공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조당전의 집, ㉡영월로 가는 길, ㉢영월(기와집)이다. 그러나 실제 이 세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조당전의 집을 벗어나지 않는다. 즉, 조당전의 집이 영월을 향한 길이 되기도 하고 영월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공간에 존재하는 인물들도 현실의 인물이면서 상상 속의 인물이 되기도 한다.

- ① ㉠에서 ㉡로의 이동은 매개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② ㉡의 인물은 재현 상황에 점차 몰입해가고 있다.
- ③ ㉡와 ㉢은 현실의 인물들이 상상한 공간이다.
- ④ ㉢에 있는 상상 속 인물들은 '미닫이문'을 통해 상상의 공간에서 현실의 공간으로 돌아온다.
- ⑤ ㉠→㉡→㉢으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물리적 공간은 모두 ㉡이다.

40. 윗글을 공연한다고 할 때, ㉠~㉢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음향효과를 사용하여 재촉하는 상황과 연결시켜야겠어.
- ② ㉡: 배우에게 낙담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표정을 짓게 해야겠어.
- ③ ㉢: 무대 배경에 영상을 이용하여 나비 떼를 표현함으로써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어.
- ④ ㉢: 표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변을 어둡게 하고, 조명을 사용해 얼굴만을 비추도록 해야겠어.
- ⑤ ㉢: 음악을 사용하여 관객들도 충격적인 느낌을 받도록 해야겠어.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이렇지언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공물을 받치고 도라갈 제 하는 일 다보았네
① 우리 댁 살림이 네부터 이러튼가
전민(田民)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는데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백여명이 넘는데도
무슨일 호노라 텃밭을 묵혔는가
농장이 엽다호는가 호미연장 못갓추었는가
날마다 무엇하려 밥만 먹고 다니면서
열나모 정자아래 낫즈만 자는가
아이들 탓이던가

② 우리댁 종의 버릇 볼수록 이상하구나
쇼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하고
왔다갔다하는 어린 손들 양반들을 실없는 말로 희롱하는가
③ 옳지 못하게 물건을 빼돌려 모으고 피부려 제 일만 하니
훈집의 많은일을 뉘라서 힘써홀고
곡식창고 비엿거든 창고지기인들 어이홀며
세간 살림이 호터지니 질그릇인들 어이홀고
내 원줄 내 몰라도 남 원줄 모를년가
④ 풀치거니 땀히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호로 열두때 어수선 뵈 거이고
외직 별감 많이 있어도 외방 마름 도달화도
제 소임 다바리고 몸 사털 쉰이로다
⑤ 비새여 썩은집을 뉘라서 곳쳐이며
웃버서 무너진 담 뉘라서 곳쳐 쌓을가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리 단이거든
화살춘 숙직하인 뉘라서 힘써 홀고
큰나큰 기울어가는 집에 주인님 혼조안자
명령을 뉘들으며 논의를 뉘라홀고
낫시름 밝근심 혼자 말아 계시거니
[A] 옥곳튼 얼굴니 편호실적 몇날일가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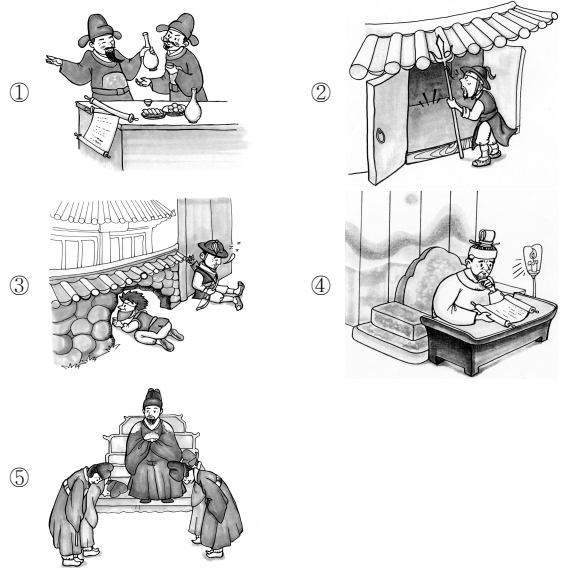
새끼꼬기 말으시고 내말씀 드로쇼셔
집 일을 고치려면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려면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려면 어른종을 믿으쇼셔
진실노 이리하시면 집안의 도가 절노 일어서리라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41~42] 다음은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41번과 42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이 작품은 임진왜란 이후 나라가 황폐(荒弊)해진 상황에서도 국사보다는 당쟁만 일삼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신하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작자가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농사짓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비유하여 '어른 종'(영의정)의 입장에서 '중'(신하)들을 나무라고 '주인님'(임금)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지은 작품이다.

41.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42. ①~⑤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의 '네부터 이러튼가'로 보아 나라의 상황이 오래전부터 황폐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②의 '종의 버릇 볼수록 이상하구나'로 보아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든 것이 신하들의 잘못임을 알 수 있다.
- ③ ③의 '옳지 못하게 물건을 빼돌려 모으고'로 보아 부정부패한 위정자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④의 '땀히거니 헐뜯거니'로 보아 신하들이 국사는 돌보지 않고 당쟁만 일삼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⑤의 '썩은집'과 '무너진 담'으로 보아 폐쇄한 나라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43. [A]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왔을 때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해나무 묶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지귀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해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뒹진다오.”

- 정약용, 「고시(古詩) 8」 -

- ① [A]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보기>에는 객관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② <보기>는 [A]와 달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기대를 강조하고 있다.
 ③ [A]는 <보기>와 달리 문제 인식과 함께 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④ [A]와 <보기> 모두 공간적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⑤ [A]와 <보기> 모두 자연물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십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만 증오하고 있는가.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 수용소의 제십사 야전 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안전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일 원 때문에

㉤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 야경꾼: 밤 사이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 너어스들: 간호사들

44. ㉠~㉤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여 정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③ ㉢: 의도적 행각이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다.
 ④ ㉣: 의미가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⑤ ㉤: 동일 시구의 반복과 변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상적 제재와 비속어의 사용은 자신의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근성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본 김수영 시의 특징이다.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자기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비판 정신은 기존 질서에 대항하고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된다.

- ① '돼지 같은 주인'이라는 표현은 설렁탕집 주인의 속물적 근성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겠군.
 ②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소시민성에 대한 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③ '전통은 유구'하다는 인식은 과거 자신의 처신에 대한 정확한 응시에 근거한 것이겠군.
 ④ '절정 위에' 서 있는 것은 기존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라 하겠어.
 ⑤ '나'의 반성은 자기비판을 넘어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하신지 확인하시오